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 건강보험산업 이익증가 논란

- 미국 시민단체 Health Care for America Now(HCAN)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대형 건강보험회사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건강보험회사들이 불량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.
 - 2009년 미국 5대 건강보험사의 총이익은 2008년에 비해 56% 증가한 12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, 같은 기간 270만 명이 개인건강보험을 해지함.
 - HCAN은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가적 요구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순이익증가가 그 단적인 예라고 설명함.
- 또한 HCAN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은 실업률이 치솟고 4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회사들이 큰 폭의 이익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반감을 살만 하다고 밝힘.
 - 공화당 의원인 Rosa DeLauro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강보험회사가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본인부담금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.
 -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회사인 Blue Cross는 지난 주 80만 명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30%~39%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.
- 건강보험산업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이익이 여타 보건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, 미국의 전체 보건비용 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%미만이며 병원비, 약제비 등은 2009년에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함.
 -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-1%를 기록한 반면, 건강관련 지출은 5.7% 증가한 2조 5천 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병원비나 약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.

(Insurance Journal, 2/12)